

‘함께 건강, 함께 안전, 행복한 전주’

전주시보건소, 신년 브리핑 통해 보건·의료분야 6대 추진 전략 제시

전주시가 올해 시민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공공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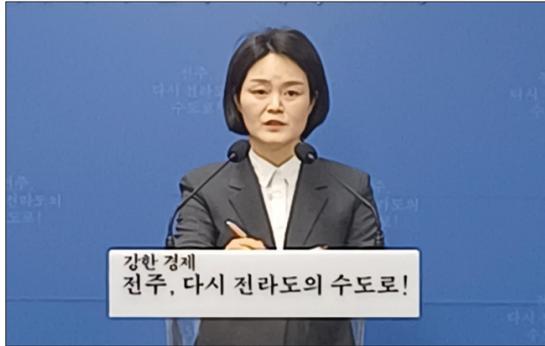
시는 24일 보건소 신년 브리핑을 통해 ‘함께 건강, 함께 안전, 행복한 전주’를 비전으로 한 보건·의료분야 6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분야 6대 추진 전략은 △일상의 건강을 찾아주는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체계 구축 강화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행복한 치매안심도시 내실화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정신건강 으뜸도시 전주 만들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관리체계 구축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강화이다.

특히 시는 올해 △아동비만 건강관리사업 △전주형 노쇠예방 관리사업 △통합돌봄 재택의료센터 총괄기관 담당 △치매어르신 구강검진 △재가 노인 방문 구강검진 △스마트경로당 활용 건강교육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의 신규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먼저 시는 초등학교 5학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아동비만 건강관리사업(건강한 볼볼놀이터)’을 통해 비만으로 인한 대사질환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성취감을 통한 자존감 향상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로 했다.

또한 전주형 노쇠예방 관리사업을 통해 성인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



전주시는 24일 보건소 신년 브리핑을 통해 ‘함께 건강, 함께 안전, 행복한 전주’를 비전으로 한 보건·의료분야 6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할 선제적 노쇠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65세 미만 성인기 대상자에 대해서는 근밀도 및 근육량 향상을 목표로 한 명품건강교실을 운영하고, 65세 이상 노년기 대상자를 위해서는 유연성과 균형감각 향상을 통한 신체기능 유지 및 낙상 예방을 목표로 실버건강교실을 운영해 건강 유지관리 능력을 키운다.

동시에 시는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의료·요양·돌봄 수요 증가에 발맞춰 통합돌봄 재택의료센터 총괄 업무를 시작하며, 일상생활에 어려

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와 협력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및 서비스 질 관리도 수행할 계획이다.

보건소는 또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 건강 관리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일례로 보건소는 치매 노인인 대한 구강 검사 및 상담을 추진하고, 지역 치과 의료기관 협력을 통해 치매안심치과를 지정해 노인 구강 진료를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시민의 구강 관리에 공을 들이기로 했다.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 맞춤형 방문 구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과의사의 구강 상태 검사 후 구강 위생 교육과 상담, 불소도포 등의 예방적 처치를 시행해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시는 스마트경로당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보건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노인들의 건강을 상시 살필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심뇌혈관질환과 구강보건, 건강생활실천, 낙상 예방을 내용으로 한 영상을 제작한 후 경로당으로 송출해 노인들의 건강 관리 접근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이후 시는 교육 콘텐츠를 더욱 다양화하고, 노인들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반영한 양방향 소통형 교육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임신 관련 정보도 올해부터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난임 부부에게 지원하던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에 더해 냉동난자 해동비 지원을 새롭게 신설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를 대상으로 부부당 1회에 한해 인당 최대 180만 원까지 4개월간 한도의 학적 난임 치료(침구, 약침, 침약 등)를 지원하는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나아가 시는 올해 대한민국 제1의 치매안심도시와 ‘대한민국 정신건강 으뜸도시’ 내실화를 위해 공을 들이기로 했다.

‘전주형 복지공동체’ 확산 집중

전주시복지재단, 복지공동체 온도플러스 지원사업 사업비 전달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이 올해도 주민이 직접 위기 이웃을 발굴하고 연결하는 ‘전주형 복지공동체’ 확산에 공을 들이기로 했다.



전주시복지재단은 24일 ‘2026 복지공동체 온도플러스 지원사업 사업비 전달식’을 열고, 최종 선정된 7개 수행기관에 총 3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선정된 기관은 △여명노인복지센터 △사랑의 실천 아플란 △전북우리아이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 △전주시주거복지센터 △청년식당 사잇길 △평화사회복지관 등 총 7개소다.

‘복지공동체 온도플러스 지원사업’은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위기·고립가구를 발굴하고, 관계 회복을 돕는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이다.

7개 기관은 지원금을 활용해 △같이 살펴보는 ‘이웃사촌’ △함께 해결하는 ‘생활 지원’ △다시 이어 가는 ‘관계 회복’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역 내 기관과 주민이 함께 움직이며 공동체가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와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24일 50개 기업의 대표 및 인사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 연계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성 고용 친화적 환경 조성 모색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 연계기업 간담회 가져

전주시가 여성들의 채용 확대와 고용유지를 위해 여성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친화적인 기업 대표들과 머리를 맞댔다.

장기 고용유지를 위한 관리 방안 모색 △센터-기업 간 상생협력 체계 마련을 위한 의견 교환 등이 이뤄졌다.

시는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양희옥)는 24일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4층 민들레홀에서 50개 기업의 대표 및 인사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 연계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사업 참여기업의 2025년도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세일 여성인턴 제도과 근무 환경개선 사업, 구직자 및 직업훈련 수료자 채용 사례,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참여 후기 등을 공유했다.

이날 발표회는 지난해 말 시민강사단 30명이 6개 조를 이뤄 진행한 교안 콘테스트를 통해 새롭게 개발·선정된 교안을 중심으로, 올해 교육에 활용하기 전 내용의 완성도와 현장 적용

이어진 소그룹 토의에서는 여성인력 채용 확대와 장기 고용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관리 전략과 센터-기업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생애주기별 탄소중립 교육사업 표준교안 발표회

전주시는 24일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탄소중립 시민강사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들의 탄소중립 교육 선택의 폭을 넓히고, 생애주기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생애주기별 탄소중립 교육사업 표준교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가능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발표회는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전주시민 12만 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 인식 전환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표준교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앞서 시는 그동안 유아 1종·청소년 7종·성인 2종 등 총 10종의 표준교안을 마련해 현재 탄소중립 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번 발표회를 통해 유아·청소년 각 1종씩 총 2개의 생애주기별 표준교안을 추가로 선정하고 기존 성인교안 중 1종을 보완 및 개정하여 총 12종의 표준교안을 올해 교육과정에 활용하게 된다.

이날 발표회는 지난해 말 시민강사단 30명이 6개 조를 이뤄 진행한 교안 콘테스트를 통해 새롭게 개발·선정된 교안을 중심으로, 올해 교육에 활용하기 전 내용의 완성도와 현장 적용

이날 발표회는 지난해 말 시민강사단 30명이 6개 조를 이뤄 진행한 교안 콘테스트를 통해 새롭게 개발·선정된 교안을 중심으로, 올해 교육에 활용하기 전 내용의 완성도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조촌동·산입보건협회 전북본부,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 조촌동(동장 이영애)은 24일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강영철)와 조촌동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북지역본부와 조촌동 주민센터 및 자생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조촌동 관내 복지취약계층 주민 50명 무료 건강검진 △지역주민 건강진단 및 국가 암 검진 실시 △예방접종 및 혈액 종합검진·검사 시 10% 할인 지원할 계획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스를 지원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예방관리 및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영애 조촌동장은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과 복지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영철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내 취약계층 주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예방관리 및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들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